

재테크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 솔루션

전문가들의 조언은 넘쳐나고, 첨단 금융기법의 도입은 금융상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초보 투자자에게 투자는 점점 더 어려운 존재가 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초보 투자자에게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장거리 운전이 어렵지 않을 수 있는 TDF(Target Date Fund)에 대해 알아보자.

◇TDF, 장기투자 위험 감수의 방정식

투자자의 예상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해 주는 펀드가 바로 TDF다. TDF는 펀드 하나로 사회 진출부터 은퇴까지의 긴 시간 동안 적립, 자산 배분, 분산투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TDF 시장점유율 37%를 자랑하는 TDF 시장의 절대 강자, 벵가드(Vanguard) 자료에 따르면 TDF는 다음의 두 가지 기본 원칙에 기반한다. 첫째, 시장 위험을 감수하면 상당한 잠재적 보상이 따른다. 둘째, 젊은 투자자는 노년층 투자자보다 해당 위험을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원칙이다.

위험 감수에 따른 잠재적 보상은 주식이 채권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 투자자는 소득 활동, 저축, 투자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글라이드 패스에 따른 '맞춤형 자산 배분'

금융시장에는 다양한 투자 상품이 넘쳐나고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주식형 상품에 장기투자하라는 조언을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존재한다. 주식형 상품 투자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반해 우리에게 주어진 인적 자원, 즉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50대 또는 60대 은퇴자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는 때로는 부적절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TDF가 갖고 있는 자산 배분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TDF 운용사는 투자자들의 근로 기간, 은퇴 시점 등 생애 주기와 다양한 위험을 감안하고 시간 흐름을 반영한 자산 배분 전략인 '자산배분곡선(글라이드 패스)'을 수립한다. 그 후 투자자들을 목표 시점에 따라 그룹화하고, 사전에 수립된 글라이드 패스 상의 각 그룹의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자산 배분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그룹별로 제공된 자산 배분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TDF 운용사의 글라이드 패스와 각 그룹(펀드)의 목표 시점까지의 잔존 기간 변화에 맞춰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하게 된다.

◇글라이드 패스, 어떻게 만들어질까

TDF를 일반적인 자산 배분 펀드와 차별화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글라이드 패스의 존재일 것이다. 글라이드 패스는 TDF 운용 과정에서 목표 시점에 근접할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줄여나가는 자산 배분 곡선의 모습이 마치 항공기 착륙 과정의 활공 경로(Glide Path)와 유사해 붙여진 용어다.

그렇다면 TDF는 시간 흐름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을



투자자 예상 은퇴 시점에 맞춰 적립·배분·분산투자 자동 조정 생애주기·성향·은퇴 후 생활 설계... 리스크 감수엔 보상 쓸쓸 맞춤 자산 배분 '글라이드 패스'... 노후 위한 장기 투자 적합 은퇴 시점 근접할수록 자동으로 주식 비중 ↓ 안전자산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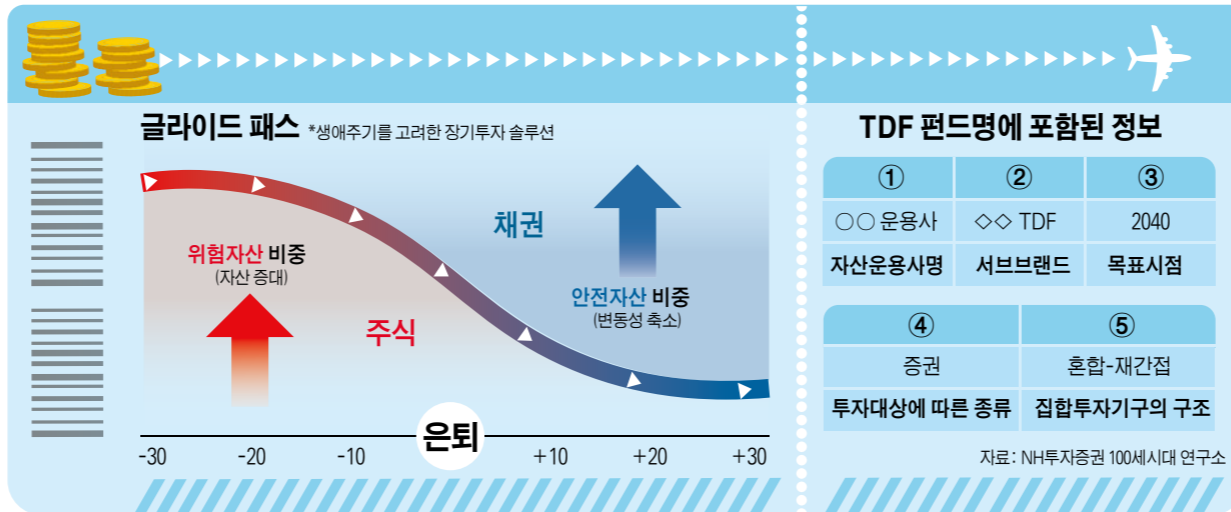
기계적으로 줄이기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단순히 보이는 우하향 곡선에는 투자자들의 생애 주기, 성향에 따른 목표 시점까지의 투자와 자산 축적, 이를 통한 은퇴 후 생활 등 생각보다 많은 정보와 분석 결과가 담겨 있다. 글라이드 패스 수립은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편입 자산군의 향후 수익률과 변동성 추정으로 시작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TDF만의 차별점이 반영된다.

목표 달성 확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 목적과 기간 파악 △리스크·소득 현황, 소득 기간 등 투자자 환경 분석 △위험

성향·손실 및 적자 회피 성향 △공적연금 현황, 은퇴 후 소득 대체율·소비 기간, 지출 시기 선호도 등 투자자의 은퇴 후 생활 관련 정보 역시 글라이드 패스 수립에 반영된다.

◇서로 다른 글라이드 패스, 잘 확인하자

글라이드 패스는 목표 시점(Target Date)과 착륙 지점(Landing Point) 즉, 자산 배분이 고정되는 시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은퇴 시점까지의 기간(To-Retirement)'과 '은퇴 이후부터 남은 생애 동안의 기간(Through-Retirement)'으로 분류할 수 있다.



To-Retirement 글라이드 패스는 목표 시점 도달까지 주식투자 비중을 낮게 주고, 이후에는 은퇴 자금으로 전환, 즉 자산 배분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된다. 반면 Through-Retirement 글라이드 패스는 일반적으로 목표 시점을 지난 후 10~20년 경과 후 일정한 자산 배분을 유지하게 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방식의 글라이드 패스는 상이한 자산 배분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은퇴 시점에 가까워지거나 은퇴 이후에는 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 운용사들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각 운용사의 홈페이지 등 자료를 참고하면 국내 TDF의 글라이드 패스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글라이드 패스는 진화 중... 맞춤형 자산 배분

TDF는 글라이드 패스에 기초한 자산 배분 조정과 함께 다양한 자산군과 지역에 대한 글로벌 분산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또 변화하는 금융시장과 투자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글라이드 패스 조정 역시 필수다.

일반적으로 TDF의 지역 배분은 미국 중심의 선진국 투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 주식·채권 시장의 글로벌 비중이 각각 1.23%, 1.3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TDF의 경우 채권 자산은 한국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같이 운용사의 전략에 따라 지역별·자산별 분산 투자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초기 TDF는 주식·채권의 단순한 전통자산 구조로 시작했지만, 물가 상승 위험 헤지 및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연동국채, 부동산 원자재, 신용채권 등으로 편입 대상 자산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기대 수명 및 은퇴 비용과 같은 투자자 환경 변화에 따라 글라이드 패스 역시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TDF 펀드명만 봐도 알 수 있다

“○○운용◇◇TDF205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길고 복잡한 TDF 펀드명, 조금만 관심을 갖고 펀드명만 살펴봐도 많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TDF 펀드명에는 지금 내가 투자하려는 TDF 운용 주체가 어디인지, 어떤 운용 전략을 지향하는지, 해당 펀드의 목표 은퇴 시점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등 해당 펀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단 우측 이미지 ‘TDF 펀드명에 포함된 정보’ 참고)

①번 항목은 TDF의 핵심인 글라이드 패스를 수립하고 운용하는 운용사를 의미한다. ②번 항목은 일반적으로 TDF 시리즈의 서브 브랜드인 경우가 많지만, 해당 운용사가 서로 다른 운용 전략의 TDF 시리즈들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등 펀드가 지향하는 운용 전략을 의미하기도 한다.

③번 네 자리 숫자로 표시된 부분은 TDF 목표 시점, 즉 투자자의 예상 은퇴 시점을 의미한다. ‘빈티지’라고 부르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5년 단위로 제시되고 있다. 만약 현재부터 16년 후인 2040년에 은퇴 예정인 투자자라면 ‘2040’ 빈티지의 TDF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번은 펀드의 투자 대상에 따른 종류를 의미한다.

⑤번은 펀드 구조를 알려준다. 국내 TDF는 대부분 ‘재간접’ 구조이지만, 일부 ‘모자’ 구조의 펀드도 있다. 유사하게 보이지만, 모자 구조는 모·자 펀드의 운용 주체가 동일한 반면, ‘재간접’ 구조는 펀드에 따른 운용사의 펀드를 편입하거나 펀드 운용을 해외운용사에 위탁하는 구조다.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정호철 연구위원
정리=재팬인 기자 yji@viva100.com

